

##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친구 접촉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억제효과

정 병 삼\*

육군3사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친구접촉과 청소년 일탈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지도감독이 미치는 종단적 억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YPS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 3,439명이 구축한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잠재성장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친구접촉, 부모의 지도감독 등이 시간-가변적 예측요인으로 투입되었다. 연구결과 먼저 부모의 지도감독, 비행친구접촉, 일탈행동 등 변인은 비선형성장을 보였다. 둘째, 부모지도감독은 비행친구접촉에 유의미한 종단적 억제효과를 보였다. 셋째, 부모지도감독은 일탈행동의 증가에 대해 유의미한 종단적 억제효과를 보였다. 넷째, 부모지도감독은 비행친구접촉의 억제를 매개로 하여 일탈행동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즉,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정도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친구접촉 및 일탈행동의 증가는 억제되었다. 부모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 일탈행동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지도감독의 영향이 더 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비행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며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조력프로그램에 있어 부모의 개입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비행친구접촉, 부모지도감독, 일탈행동, 잠재성장모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병삼, 육군3사관학교 교육학과 전임강사, (770-849)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사서함 135-9 Tel : 054-330-4811, E-mail : byong3@hanmail.net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축적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L'Abate, 1998; O'Donnell et al., 1995). 가정요인 중 부모-자녀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청소년의 병리적 현상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ecovic et al., 2003; Patterson et al., 1992).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부모요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녀가 밖에서 활동하는 장소, 내용, 친구관계 등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다(Kerr & Stattin, 2000; Patterson et al., 1992).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녀의 삶에 대한 통제와 제약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관심은 부모-자녀관계의 질(quality)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ishon & McMahon, 1998; Patterson et al., 1992). Dishon과 McMahon(1998)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동기부여, 적절한 통제와 훈육이 부모-자녀관계의 근간을 이룬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외부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적절하게 개입할수록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과 지지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Reitz et al., 2007).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letcher et al., 1995; Jacobson & Crockett, 2000).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점차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커진다. 선행연구를 검토했을 때,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은 수록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빈도가 높아지고(Berndt & Keefe, 1995),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Patterson et al., 1992). 이런 현상은 비행친구가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일탈행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Dishon et al., 1995). 또한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로부터 제공받는 강화(reinforcement)와 새로운 문제행동에 대한 모방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서 부모와 또래집단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양 편의 영향력이 어떤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또한 이런 역동적 관계가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다만 부모와 또래집단의 영향력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Hirshi(1969)는 사회적 통제이론에서 부모와 또래와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문제행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부모와의 애착, 또래집단과의 교류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인다. 이후 Patterson(1982)에 의해 압력이론(coersion theory)이 제시되었다. 이 이론의 일반적인 가정은 사회적 환경에서 강화되는 사건에 따라서 문제행동이 학습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부모의 부적강화는 청소년기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통한 일탈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Berndt & Keefe, 1995). 선행연구에서 비행친구와 접촉이 많을수록 사회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Brendgen et al., 2000), 약물중독과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보일 우려가 높다(Aseltine, 1995).

지금까지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정적, 갈등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강화하여 문제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진다(Lahey et al., 1999). 가족간의 응집과 친밀감, 관계의 질 등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일수록 비행친구와 접촉할 가능성과 일탈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Goldstein et al., 2005; Weaver & Prelow, 2005; Werner & Silbereisen, 2002). 반대로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친밀감,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성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빈도가 낮아지며 일탈행동에 관여할 위험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은 비행친구와의 접촉 및 일탈행동의 관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청소년이 비행친구와 접촉하고, 일탈행동에 관여하는 정도에 대한 억제적 상호관계는 이론으로 제시되고 일부 횡단적 연구(cross-

sectional research)가 수행되었다. 극히 드물게 종단적 연구가 수행된 경우도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의 문제행동이 직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화에 그쳤다(Prinz et al, 2003; Stouthamer-Loeber et al., 2002). 그러나 부모의 관심과 훈육, 또래 집단과의 접촉, 문제행동 등은 발달적, 변화적인 구인(construct)으로서 종단적 자료분석방법을 적용한다면 부모와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어떤 역동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부모의 지도감독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의 일탈행동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 중 시간적 변화를 모형화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부모요인의 매개 혹은 억제효과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 예를 들어, Dishion 등(2004)이 수행한 연구는 가족의 응집성 붕괴와 청소년의 비행친구 접촉이 가지는 상호작용 관계의 변화를 발견했다. Bray 등(2003)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개별화, 또래집단의 음주, 청소년의 음주 등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개별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음주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Simons 등(2001)이 수행한 연구가 유일하게 부모요인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양육의 질이 아동기 반항과 청소년기 비행친구와의 접촉, 일탈행동 등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규명했다. 이들은 아동기 반항적 행동은 적절하지 못한 부모의 훈육과 관련되어 있으며 청소년기 비행친구와 접촉 및 일탈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연구에서도 시간적인 변화를 적절하게 모형화 하지 못했다.

Bongers 등(2003)은 어머니들의 보고를 통해 일탈행동은 11세까지 곡선형(curvilinear) 증가를 보이며, 남자집단이 여자집단에 비해 더 빈번한 일탈행동을 보인다고 밝혔다. 초기 비행정도가 낮은 아동은 높은 아동에 비해서 더 빠른 2차함수적(quadratic) 변화를 보인다. Loeber 등(1991)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반항적인 행동은 4-5세에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반면, 남자 아동의 경우 외현

화된 문제행동은 14세 정도까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해 청소년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정소희(2009)가 청소년 비행의 발달과정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규명을 시도하여 부모지도감독을 포함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1년 차만의 지도감독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였으므로 나머지 4년간의 부모지도감독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없었다. 이은주(2009)의 연구는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을 적용했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경우 이전측정치(adjacent measurements)간의 상관만을 고려하는 모형이므로 외생독립변수의 잠재변인으로서 기울기가 내생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할 수는 없다. 이상균(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경비행(light deviant behavior)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소년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의 양육행동의 일부분으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질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엄연히 다른 구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인으로 간주하여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지도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친구접촉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성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성차를 외생독립변인( $\xi$ )으로 모형화하여 각 측정시점에서 부모지도감독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다른지에 대한 모수추정은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과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그 관계를 규명하는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의 일탈행동(delinquent behavior)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지도감독의 조절효과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LGM은 다른 구조방정식모형과 달리 잠재요인의 평균과 공분산구조를 동시에 모형화하는 특징이 있고, 개인과 집단의 성장모수를 모두 추정할 수 있다(Meredith

& Tisak, 1991). 이는 반복측정분산분석이 집단의 평균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대비되는 LGM의 장점이다. Meredith와 Tisak(1991)은 구조방정식의 틀 내에서 구현된 LGM을 제안했고, McArdle(1988), McArdle과 Epstein 등(1987)이 발전시켰다. 기본적인 잠재성장모형은 잠재변인으로서 절편(intercept)과 기울기(slope)가 관찰변수로서 최소 세 개 이상의 반복측정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형으로 구성된다. 모형의 절편( $\eta_1$ )은 초기값을 의미하고, 기울기( $\eta_2$ )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의미한다. 선형모형에서는 절편에서 관찰변수로의 경로 계수( $\lambda$ )를 1로 고정하고, 기울기에서 관찰변수로의 경로 계수는 실제 측정간격으로 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도감독을 매년 5년간 매년 측정했으므로, 기울기가 관찰변수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계수는 0, 1, 2, 3, 4등으로 고정한다. 반면, 비선형성장모형에서는 기울기에서 관찰변수로의 경로 계수를 고정하지 않고, 모형자체가 변화율을 추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psi$  계수는 내생잠재변수로서 절편과 기울기간의 변량-공변량행렬을 나타내고,  $\phi$  계수는 독립변수가 추가된 조건 모형에서 외생잠재변수의 변량-공변량행렬을 나타낸다.  $\Gamma$  계수는 외생잠재변수가 내생잠재변수인 절편과 기울기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B$  계수는 내생잠재변수 간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LGM을 적용함으로써 잠재요인으로서 부모의 지도감독과 비행친구접촉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을 고려할 때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갖는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시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와 이때 부모지도감독의 중단적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지도감독의 중단적 효과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부모의 지도감독의 절편과 기울기가 청소년의 비행친구접촉의 절편과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일탈행동의 절편과 기울기에 미치는 효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억제함으로써 미치는 간접적 억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성변수를 단순히 외생독립변수로 모형화하지 않고 각 측정시점에서 부모지도감독이 일탈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수추정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중다집단 잠재변량분석(multigroup latent growth model)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지금까지 국내연구에서는 시도된 경우가 없으므로 청소년 일탈행동의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지도감독은 비행친구 접촉의 증가를 억제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지도감독은 청소년 일탈행동의 증가를 억제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지도감독은 비행친구 접촉을 억제함으로써 일탈행동의 증가를 억제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 확률표집을 통해 추출한 3,449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5차에 걸쳐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5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반복조사를 통해 중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중 2패널 3,449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들은 1차 년도에서 중학교 2학년이었다가 5차 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로서 전국 중기 및 후기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서 적합하다.

## 연구도구

### 부모의 지도감독 척도(parental monitoring)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내용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 5점척도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지도감독의 경우 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 한 부모 가족이나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존재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를 분석했을 때 이러한 학생을 제외하지 않았고,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여 지도감독을 제공하는 후견인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런 학생도 포함하여 분석했다. 부모지도감독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했다.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이유는 가장 응답자수가 많고 이전 응답경험으로 인한 기억효과(carryover effect)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4개의 문항들은 단일요인에 부하되었으며 요인은 전체분산의 69.15%를 설명하여 양호한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5였다.

### 비행친구와 접촉 척도

친구과의 접촉은 일상생활에서 비행에 관련되어 있는 친구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내용은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친구의 수”,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담배를 피운 친구의 수”,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무단결석을 한 친구의 수”,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친구의 수”,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친구의 수”, “친구들 중 지난 1년 동안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친구의 수” 등 6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의 수를 보고한 원자료의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비행친구 접촉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해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문항은 단일 요인에 부하되었으며 요인은 전체분산의 61.15%를 설명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4였다.

### 일탈행동척도

일탈행동척도는 청소년들이 실제 일탈행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도구로서 내용은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경험 유무”, “지난 1년 동안 담배를 피운 경험 유무”, “지난 1년 동안 무단결석을 한 경험 유무”,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 유무”, “지난 1년 동안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 유무”, “지난 1년 동안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유무” 등 6개 문항이다. 일탈행동의 유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경우 0, 경험했을 경우는 1로 코딩하여 여섯 가지 일탈행동을 모두 경험한 청소년은 6점에 해당한다. 청소년패널을 이용한 선행연구(이상균, 2009; 정소희, 2009; 정익중, 200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탈행동은 측정시점에 따라 12.6~22.0%의 결측치를 보이고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이 10이상인 경우가 발견되어 비정규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완전정보우도추정법(full information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였다. 또한 데이터가 정규성가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년차부터 5년차 일탈행동에 대해 Shapiro-Wilk검정을 실시하고,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자료가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교정하였고, 정적편포의 정도가 매우 개선되었다. 일탈행동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문항은 단일 요인에 부하되었으며 요인은 전체분산의 36.19%를 설명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0이었다.

### 자료분석방법

가설검증을 하기에 앞서 최적의 기초모형(무조건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부모의 지도감독, 비행친구접촉,

일탈행동의 반복측정자료에 대해 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linear growth model)과 비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spline growth model)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위계적 카이제곱검증( $\Delta\chi^2$ )을 실시하여 절대적 적합도 지수( $\chi^2$ ,  $RMSEA$ )와 기술적 적합도 지수( $CFI$ ,  $NNFI$ )를 비교하여 하여 가장 적합도가 양호한 모형을 채택했다.

먼저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지도 감독의 절편과 기울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비행친구 접촉의 절편과 기울기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조건모형에 대해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독립변인의 절편( $\phi_{11}$ )은 종속변인의 절편( $\psi_{11}$ )에, 독립변인의 기울기( $\phi_{22}$ )는 종속변인의 기울기( $\psi_{22}$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지도감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일탈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조건모형에 대해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역시 독립변인의 절편( $\phi_{11}$ )은 종속변인의 절편( $\psi_{11}$ )에, 독립변인의 기울기( $\phi_{22}$ )는 종속변인의 기울기( $\psi_{22}$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했다.

세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지도감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 및 일탈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잠재성장 분석에서 관심의 초점은 각 모형에서 독립변인의 기울기가 종속변인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 $\gamma_{11}$ )의 유의미성이다. 또한 독립변인이 투입되기 이전과 이후의 종속변인 절편과 기울기 분산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여부이다. 즉, 절편과 기울기 분산의 감소분은 독립변인의 효과이며 이를 비율로 환산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로 간주한다. 자료분석을 위해서 기술통계,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SPSS 12.0프로그램, 잠재성장분석을 위해서는 LISREL 8.8프로그램을 사용했다.

## 결 과

### 주요변수의 기초통계치 및 다변량가정 점검

15개 관찰변수로 구성된 표본자료가 다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에는 관찰값의 독립성, 국외자(outliers) 확인, 다변량정규분포, 변량-공변량행렬의 동질성 등이 있다(Stevens, 1999). 먼저 연구설계를 검토했을 때 15개 변수는 확률표집에 의한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단변량 및 다변량 국외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Z점수가 3.29이상인 값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15개 변인의 히스토그램에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점검하고 Shapiro-Wilk's test를 실시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표본자료는 다변량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관찰변수의 상관계수행렬 및 기술통계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기초모형의 탐색

세 변수를 설명하는 기초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과 비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했고, 부모지도감독, 비행친구 접촉, 일탈행동에 관해 무조건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이런 모형비교에서 관심은 위계적 카이제곱검정으로 어떤 모형이 관찰자료의 평균 및 공변량행렬에 더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Meredith & Tisak, 1991). 세 가지 변수에 대 선형성장모형의 비선형성장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부모지도감독에 대해 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카이제곱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83.75$ ,  $df=10$ ,  $p<.001$ ). 즉, 모형에서 암시된 공변량행렬은 주어진 표본자료의 공변량행렬과 통계적으로 불일치 정도가 유의미했다. 그러나 카이제곱값은 표본의 사례수가 커질수록 예민해져서 약간의 차이에도 쉽게 모형을 기각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기술적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Bollen, 1989; Fan, 1996). 기술적 적합도 지수들은 .98이상으로 매우 높은 합치도를 보였다.

표 1. 주요변수의 상관계수행렬 및 기술통계치(N=3,44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497														
3	.446	.487													
4	.379	.428	.493												
5	.379	.438	.467	.523											
6	-.091	-.068	-.071	-.042	-.041										
7	-.102	-.084	-.071	-.076	-.058	.421									
8	-.076	-.065	-.114	-.073	-.092	.284	.285								
9	-.096	-.105	-.116	-.084	-.080	.237	.281	.475							
10	-.111	-.081	-.090	-.112	-.122	.168	.234	.297	.494						
11	-.175	-.128	-.096	-.066	-.088	.517	.335	.246	.236	.239					
12	-.158	-.145	-.083	-.078	-.069	.392	.412	.340	.337	.293	.559				
13	-.156	-.135	-.159	-.093	-.106	.270	.297	.451	.327	.299	.398	.493			
14	-.138	-.148	-.120	-.127	-.132	.230	.264	.378	.512	.349	.351	.420	.554		
15	-.165	-.142	-.145	-.144	-.175	.213	.206	.302	.392	.487	.305	.382	.441	.572	
M	12.88	13.48	13.50	13.68	13.79	2.97	3.52	3.91	4.44	5.01	6.70	6.55	6.59	6.68	6.81
SD	3.46	3.35	3.33	3.26	3.38	8.10	11.29	9.02	9.01	10.15	1.09	.98	.89	.88	.90

\* 변수 1~5: 5년간의 부모의 지도감독, 6~10: 5년간의 비행친구와의 접촉, 11~15: 5년간 일탈행동

표 2.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chi^2$	df	p	RMSEA	NNFI	CFI
부모지도감독	선형	83.75	10	<.001	.046	.99	.99
	비선형	36.58	7	<.001	.035	.99	.99
비행친구접촉	선형	174.95	10	<.001	.070	.95	.95
	비선형	113.75	7	<.001	.065	.97	.97
일탈행동	선형	373.05	10	<.001	.10	.94	.94
	비선형	263.72	7	<.001	.070	.96	.96
	선형+2차항	63.95	6	<.001	.053	.99	.99

이 경우에는 RMSEA값을 근거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RMSEA값을 검토한 결과 0.048로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선형자유추정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카이제곱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chi^2=36.58$ ,  $df=7$ ,  $p<.001$ ),

기술적 적합도지수들(CFI=.99, NNFI=.99)은 .99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고, RMSEA값도 .034로 양호했다. 따라서 선형모형과 비선형자유추정모형의 우열을 평가하기 위해 위계적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의 카이제곱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Delta\chi^2=47.17, \Delta df=3, p<.001$ ). 즉, 비선형 자유추정모형은 선형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RMSEA*값에도 차이가 있었다( $\Delta=.011$ ). 이럴 경우 보다 표본자료에 적합한 비선형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모지도감독의 절편과 기울기 사이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psi_{12}=-.08, p<.001$ ). 다음으로 비행친구접촉에 대한 선형성장모형과 비선형성장모형의 분석결과 선형모형과 비선형자유추정모형의 우열을 평가하기 위해 위계적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의 카이제곱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Delta\chi^2=63.98, \Delta df=3, p<.001$ ). 즉, 비선형자유추정모형은 선형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RMSEA*값( $\Delta=.015$ )과 기술적 적합도 지수( $\Delta NNFI=.02, \Delta CFI=.02$ )에서도 비선형모형이 더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럴 경우 보다 표본자료에 적합한 비선형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친구접촉의 절편과 기울기 사이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psi_{12}=-.54, p<.001$ ).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선형성장모형( $\chi^2=373.05, df=10, p<.001$ )과 비선형성장모형( $\chi^2=263.72, df=7, p<.001$ ), 그리고 선형선장에 2차항을 추가시킨 모형( $\chi^2=63.95, df=6, p<.001$ )의 분석을 실시했다. 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한 선형연

구에서 비행의 발달경향의 분석에 2차항을 포함시켰을 때 적합도가 증진되는 것을 보고한 경우가 다수 있었고(정소희, 2009; 정익중, 2009), 본 연구에서도 2차항을 포함시킨 결과 선형성장모형에 비해 절대적 적합도지수와 기술적 적합도 지수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일탈행동의 절편과 선형 기울기 사이( $\psi_{12}=-.66, p<.001$ ), 절편과 2차항 기울기 사이( $\psi_{13}=.47, p<.001$ ), 선형 기울기와 2차항 기울기( $\psi_{23}=-.92, p<.001$ )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 부모지도감독이 비행친구 접촉에 미치는 효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이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빈도에 대해 종단적인 억제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지도감독의 절편과 기울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비행친구접촉의 절편과 기울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조건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부모지도감독의 절편은 비행친구접촉 절편( $\gamma_{11}=-.15, p <.001$ )과 비행친구접촉의 기울기( $\gamma_{21}=-.10, p <.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지도감독의 기울기 역시 비행친구접촉의 기울기( $\gamma_{22}=-.14,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지도감독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조건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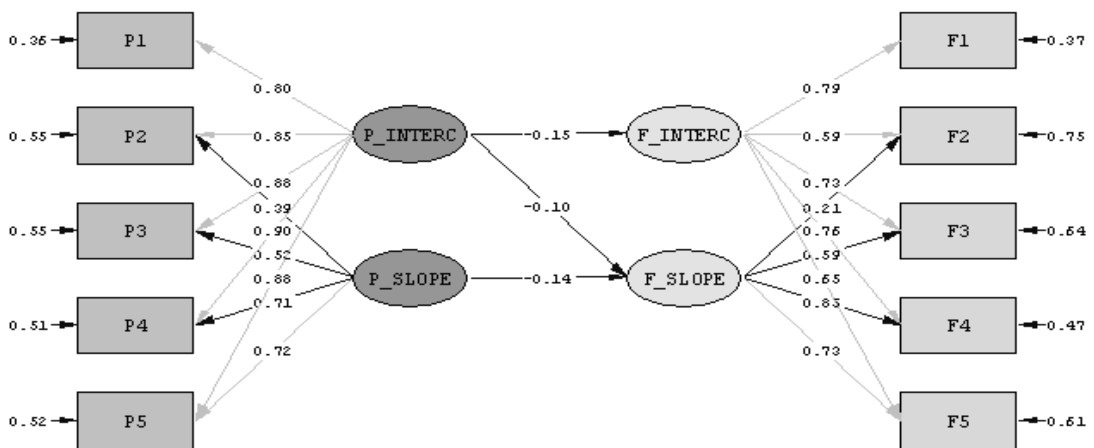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에 관한 조건모형



형의 절대적 적합도지수( $\chi^2=194.92$ ,  $df=36$ ,  $p<.001$ ), 기술적 적합도지수들( $CFI=.98$ ,  $NNFI=.98$ )은 양호한 수준이었고,  $RMSEA$ 값도 .036으로 양호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지도감독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리고 지도감독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비행친구의 접촉은 감소하였고, 그 영향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부모지도감독의 절편과 기울기가 예측변인으로 투입됨으로써 무조건모형의 절편분산( $\psi_{11}=39.89$ )과 기울기 분산( $\psi_{22}=3.07$ )에 비해 조건모형의 절편 분산( $\psi_{11}=37.03$ )과 기울기 분산( $\psi_{22}=2.68$ )이 각각 7.1%, 12.7% 감소하였다. 이 감소분은 부모지도감독의 절편과 기울기의 효과 크기(effect size)로서 부모지도감독의 기울기는 친구접촉의 기울기에 상당한(considerable) 부적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부모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학생( $N=1,509$ ), 여학생( $N=1,457$ ) 집단을 분리하여 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두 집단 모두 동일한 모수치를 추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모형(Invariance Constraints Model)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 적합도 지수( $\chi^2=6679.61$ ,  $df=94$ ,  $p<.001$ ), 기술적 적합도 지수들( $CFI=.35$ ,  $NNFI=.35$ )는 매우 열악했고,  $RMSEA$  값도 .22으로 매우 열악한 합치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의 절편과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다르게 추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결과 절대적 적합도지수( $\chi^2=237.15$ ,  $df=75$ ,  $RMSEA=.038$ )와 기술적 적합도지수( $CFI=.98$ ,  $NNFI=.98$ )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Delta\chi^2=6442.46$ ,  $\Delta df=19$ ,  $p<.001$ ). 남학생 집단의 경우 지도감독의 절편은 비행친구접촉의 절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gamma_{11}=-.11$ ,  $p<.001$ ),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gamma_{21}=-.05$ ,  $p>.05$ ). 또한 지도감독의 기울기가 비행친구접촉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gamma_{22}=-.02$ ,  $p>.05$ ). 반면, 여학생 집단의 경우 지도감독의 절편은 비

행친구접촉의 절편과( $\gamma_{11}=-.18$ ,  $p<.001$ ) 기울기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ma_{21}=-.22$ ,  $p<.001$ ). 또한 지도감독의 기울기 역시 비행친구접촉의 기울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ma_{22}=-.48$ ,  $p<.001$ ). 즉, 부모의 지도감독은 남학생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비행친구접촉에 대한 억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부모의 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의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효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일탈행동 대해 종단적인 억제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지도감독의 절편과 기울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 일탈행동의 절편과 기울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조건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고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부모지도감독의 절편은 일탈행동의 절편( $\gamma_{11}=-.25$ ,  $p<.001$ )과 2차항 기울기( $\gamma_{31}=-.10$ ,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1차항 기울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gamma_{21}=.07$ ,  $p>.05$ ). 부모지도감독의 기울기가 일탈행동의 1차항 기울기( $\gamma_{22}=-.05$ ,  $p>.05$ )와 2차항 기울기( $\gamma_{22}=-.04$ ,  $p>.05$ )에 미치는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지도감독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조건모형의 절대적 적합도지수( $\chi^2=172.78$ ,  $df=33$ ,  $p<.001$ ), 기술적 적합도지수들( $CFI=.99$ ,  $NNFI=.99$ )은 양호한 수준이었고,  $RMSEA$  값도 .035로 양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지도감독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의 초기치가 낮고, 일탈행동 증가를 유의미하게 억제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지도감독의 증가는 일탈행동의 증가에는 유의미한 억제효과를 가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모지도감독의 절편과 기울기가 예측변인으로 투입됨으로써 비행에 대한 무조건모형의 절편분산( $\psi_{11}=.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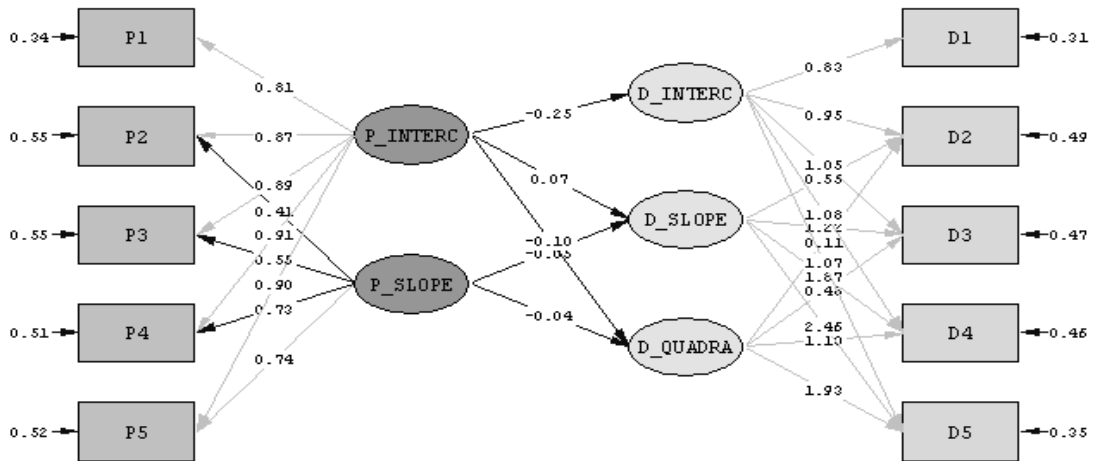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에 관한 조건모형

과 1차항 기울기 분산( $\psi_{22}=.27$ ), 2차항 기울기 분산( $\psi_{22}=.01$ )에 비해 조건모형의 절편분산( $\psi_{11}=.76$ )이 6.2% 감소하였다. 그러나 1차항 기울기 분산( $\psi_{22}=.27$ ), 2차항 기울기 분산( $\psi_{22}=.01$ )의 감소분은 매우 미미했다.

다음으로 부모지도감독이 일탈행동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학생( $N=1,509$ ), 여학생( $N=1,457$ ) 집단을 분리하여 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두 집단 모두 동일한 모수치를 추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모형(Invariance Constraints Model)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 적합도 지수( $\chi^2=6808.19$ ,  $df=90$ ,  $RMSEA=.22$ )와 기술적 적합도지수들( $CFI=.40$ ,  $NNFI=.40$ )은 매우 열악했다. 다음으로 부모지도감독이 일탈행동의 절편과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다르게 추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결과 절대적 적합도지수( $\chi^2=186.28$ ,  $df=66$ ,  $RMSEA=.035$ )와 기술적 적합도지수( $CFI=.99$ ,  $NNFI=.99$ )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Delta\chi^2=6442.46$ ,  $\Delta df=24$ ,  $p<.001$ ). 남학생 집단의 경우 지도감독의 절편은 비행친구접촉의 절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gamma_{11}=-.25$ ,  $p<.001$ ), 1차항의 기울기( $\gamma_{21}=.10$ ,  $p>.05$ )와 2차항의 기울기( $\gamma_{31}=-.10$ ,  $p>.05$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지도감독의 기울기가 비행친구접촉의 1차항의 기울기( $\gamma_{22}=.00$ ,  $p>.05$ )와 2차항의 기울기( $\gamma_{32}=.01$ ,  $p>.05$ )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지도감독의 절편은 일탈행동의 절편에( $\gamma_{11}=-.19$ ,  $p<.001$ )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1차항의 기울기( $\gamma_{21}=-.21$ ,  $p>.05$ )와 2차항의 기울기( $\gamma_{31}=.14$ ,  $p>.05$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도감독의 기울기는 일탈행동의 1차항의 기울기( $\gamma_{22}=-.51$ ,  $p<.001$ )와 2차항의 기울기( $\gamma_{32}=.38$ ,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지도감독은 남학생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일탈행동의 증가에 대한 억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모형의 경우 남녀학생을 함께 포함(pooled sample)하여 분석했을 때 지도감독의 변화가 일탈행동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학생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이 증가할수록 일탈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부모의 지도감독이 일탈행동의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 부모의 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을 매개로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효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을 억제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동 대해 간접적인 억제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지도감독의 절편과 기울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비행친구접촉의 절편과 기울기를 매개변인으로 하며, 청소년 일탈행동의 절편과 기울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조건모형의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의 초점은 부모지도감독의 기울기가 비행친구접촉의 기울기를 통해 청소년일탈행동의 기울기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이다. 분석의 모형을 그림 3에 제시했다.

그 결과 부모지도감독의 기울기는 비행친구접촉의 기울기( $\gamma_{22} = -.21, p < .001$ )와 일탈행동의 1차항 기울기( $\gamma_{42} = -.11, p < .001$ )와 2차항 기울기( $\gamma_{52} = -.11, p < .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지도감독을 배제한 상태에서 비행친구접촉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모형의 적합도( $\chi^2 = 179.4, df = 74, RMSEA = .069$ )와 부모의 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을 억제함으로써 일탈행동을 억제하는 조건모형의 적합도( $\chi^2 = 115.96, df = 66, RMSEA = .063$ )에 대해 위계적 카이사승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의 적합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Delta\chi^2 = 63.44, \Delta df = 8, p < .001$ ). 즉, 부모 지도감독이 친구접촉이 일탈행동을 억제함으로써 일탈행동의 증가를 억제하는 모형은 부모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친구접촉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합도가 양호했다. 부모 지도감독의 영향을 받은 비행친구접촉의 기울기는 일탈행동의 1차항 기울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beta_{22} = .07, p < .001$ ), 부모지도감독의 영향이 배제된 상태에서 분석된 모형( $\beta_{22} = .09, p < .001$ )에 비해 효과가 감소되었다. 부모지도감독의 절편과 기울기 및 비행친구접촉의 절편 및 기울기가 예측변인으로 투입됨으로써 무조건모형의 절편분산( $\psi_{11} = .48$ )과 기울기 분산( $\psi_{22} = .02$ )에 비해 조건모형의 절편 분산( $\psi_{11} = .39$ )과 기울기 분산( $\psi_{22} = .011$ )이 각각 18.75%, 45% 감소하였다. 이 감소분은 부모지도감독의 절편과 기울기 및 비행친구접촉의 절편과 기울기의 효과크기(effect size)이다. 부모 지도감독의 기울기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기울기에 대해  $-.21$  만큼의 직접효과와  $-.015$  만큼의 간접효과를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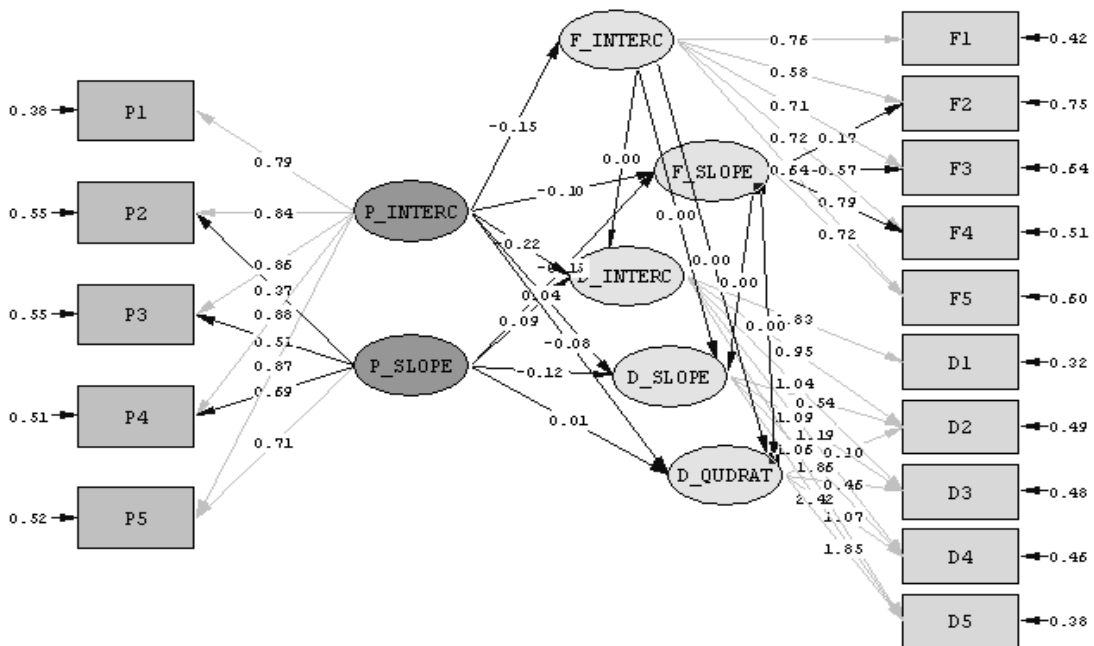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의 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을 매개로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효과

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검토했을 때 부모의 지도 감독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억제함으로써 청소년 일탈 행동의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는 세 번째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 논 의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지도감독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유의미하게 억제한다. 분석결과 부모의 지도감독을 더 많이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감독의 내용은 청소년이 가정 밖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가 청소년의 외부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청소년이 비행친구와 접촉이 증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가 청소년의 외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획득을 시도하면 청소년은 더욱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통제와 훈육을 가할수록 자녀는 오히려 부모-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ishon & McMahon, 1998; Patterson et al., 1992). 기존의 연구는 횡단적 설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도감독의 가치와 중요성을 종단적 설계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모의 지도감독이라는 구인(construct)을 측정하는 척도의 내용은 청소년의 외부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식(knowledge)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것

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고, 이러한 의문은 주로 횡단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제기되었다(Kerr, Stattin, & Burk,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종단자료에서 청소년의 지각한 부모의 지도감독은 결국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애착, 신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부모를 신뢰할수록 자신의 외부활동에 대해 부모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부모의 평가와 조언에 경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지도에 있어 부모의 관심과 훈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부모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고 부모의 지지와 적절한 훈육을 받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지지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의 애착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의 외부활동에 대해 정보를 획득해야지 강요와 간섭에 의한 정보획득 노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Kostecky, 2005). 부모의 지도 감독 비행친구접촉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남학생 집단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 이는 여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가 외부활동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비행친구접촉의 증가가 억제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학생일수록 부모가 비행친구의 접촉에 대해서 더 보호적인 경향을 띤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지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설계시 여학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의 지도감독은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의 증가를 억제한다. 부모지도감독의 내용은 청소년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식과 정보로서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이 누구를 만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식하고 이러한 인식은 일탈행동의 증가를 억제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부모지도감독구인의 내용은 자녀의 외부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식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청소년의 일탈

행동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부모가 청소년의 외부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때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증가는 억제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Reitz 등(2007)이 수행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으로 보여준다.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 일탈행동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남학생 집단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이 일탈행동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컸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및 훈육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모의 훈육효과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의 지도감독은 청소년들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억제함으로써 일탈행동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억제한다. 즉 부모의 지도감독은 청소년일탈행동의 증가에 대해 직접적 억제효과와 간접적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다. 비행친구접촉이 청소년일탈행동의 증가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을 억제하는 모형으로 구성했을 때는 부모지도감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서 비행친구접촉이 일탈행동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다. 분석결과를 검토했을 때 부모지도감독의 절편 역시 일탈행동의 절편에 유의미한 부정적영향을 미쳤다. 부모지도감독이 낮을수록,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수준과 훈육 및 개입의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초기 일탈행동의 수준이 높고 이는 비행친구접촉 및 일탈행동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외부활동에 대해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비행친구 접촉 및 일탈행동의 초기수준이 낮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이전부터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외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언을 통해 지도하는 부모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력프로그램의 개발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청소년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기

울이고 정보를 얻는 의사소통을 시도하더라도 대화기술의 부족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활동에 대해 물었을 때 효과적인 대화기술이 상용되지 않을 경우 자녀는 그것을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인식하여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에 있어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기법이 반드시 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친구접촉 및 일탈행동증가를 유의미하게 억제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규명했다는 이론적 가치와 함께 부모지도감독이라는 구인(construct)이 경험적으로 존재하고 직접 및 간접적으로 종단적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조력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부모의 개입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한 부모의 개입에는 자녀와 외부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한 대화기술, 부적절한 교우관계 혹은 비행의 교정을 위한 효과적인 충고 및 조언제공을 위한 기술훈련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부모와의 애착,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학교생활 등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도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모형을 구성했다. 차후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일탈행동의 발생 및 변화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과 일탈행동에 일방적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만을 모형화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행친구의 접촉이나 일탈행동이 부모의 지도감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즉, 자녀가 비행친구와 접촉하거나, 일탈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변관계를 모형화하지 않았다. 차후 연구에서는 부모지도감독과 청소년의 비행친구 접촉 및 일탈행동의 공변관계를 포

합하는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실제적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한 부모 및 기타 변인의 영향력은 경도집단과 중도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차이를 모형화하지 않았다. 차후 연구에서는 비행의 정도가 가벼운 집단과 무거운 집단으로 구분하여 양 집단의 비행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별로 비행의 예방 및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이상균(2009). 청소년기 경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분석-청소년에게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가?-. **한국가족복지학**, 27, 243-266.
- 이은주(2009).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 141-171.
- 정소희(2009).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0, 31-64.
- 정익중(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 253-280.
- Aseltnine, R. H. (1995). A reconsideration of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devia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103-121.
- Berndt, T. J., & K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179-192.
- Bray, J. H., Adams, G. J., Getz, J. G., & McQueen, A. (2003). Individuation, peers, and adolescent alcohol use: A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Consult of Clinical Psychology*, 71, 553-564.
- Brendgen, M., Vitaro, F., & Burkowski, W. M. (2000). Devian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t*, 10, 173-189.
- Dekovic, M., Janssens, J. M., & Van AS, N. M. C. (2003). Family predictors of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Family Process*, 42, 223-235.
- Dishion, T. J., Andrews, D. W., & Crosby, L. (1995). Antisocial boys and their friends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quality, and interactional process. *Child Development*, 66, 139-151.
- Dishion, T. J., & McMahon, R. J. (1998). Parental monitoring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rmula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 61-75.
- Dishion, T. J., Nelson, S. E., & Bullock, B. M. (2004). Premature adolescent autonomy: Parent disengagement and deviant peer process in the amplification of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27, 515-530.
- Fletcher, A. C., Darling, N., & Steinberg, L. (1995).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In McCord, J. (ed). *Coercion and punishment in long-term perspectives*. (pp. 295-271.).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ck, P. J., Lahey, B. B., Loeber, R., Tannenbaum, L. E., van Horn, Y., Christ, M. A. G., Hart, E. A., & Hanson, K. (1993). Opposition defiant disorder analyses and cross-validation in an clinic samp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 319-340.
- Goldstein, S. E., Davis-Kean, P. E., Eccles, J. S. (2005). Parents, peers, and problem behavior: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relationship perceptions and characteristics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Development Psychology, 41*, 401-413.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cobson, K. C., & Crockett, L. J. (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 65-97.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7.
- L'Abate, L. (1998). Discovery of the family: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265-280.
- Lahey, B. B., Waldman, I. D., & McBurnett, K. (1999).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An integrative causal mode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669-682.
- Loeber, R., Stouthamer-Loeber, M. (1991). Initiation, escalation and desistance in juvenile offending and their correlates.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82*, 36-50.
- McArdle, J. J. (1988). Dynamic bu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repeated measures data. In R. B. Cattell & J. Nesselroade (Eds.), *Handbook of multivariate experimental psychology* (2nd ed., pp. 561-614). New York: Plenum.
- McArdle, J. J., & Epstein, D. (1987). Latent growth curves within development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Child Development, 58*, 110-133.
- Meredith, W., & Tisak, J. (1991).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 107-122.
- O'Donnell, J., Hawkins, J. D., & Abott, R. D. (1995). Predicting serious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mong 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 and Clinical Psychology, 63*, 529-537.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egon: Castalia.
- Patterson, G. R., Reid, J.,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egon: Castalia.
- Prinz, P., Onghena, P., Hellinckx, W., Grietens, H., Ghesquiere, P., & Colpin, H. (2003). The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ing and children's personality on externalizing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95-117.
- Reitz, E., Rinzie, P., Dekovic, M., & Buist, K. L. (2007). The role of peer conta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knowledge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behaviors: A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5), 623-635.
- Simons, R. L., Chao, W., Conger, R. D., & Elder, G. H. (2001). Quality of parenting as mediator of the effect of childhood defiance on adolescent friendship choices and delinquency: A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9*, 63-79.
- Stanger, C., Achenbach, T. M., & Vehulst, F. C. (1997). Accelerated longitudinal comparisons of aggressive versus delinquent syndromes. *Deviant Psychopathology, 9*, 43-58.
- Stevens, J. (1999).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outhamer-Loeber, M., Loeber, R., Wei, E., Farrington, D. P., & Wikstrom, P. O. H. (2002).

- Risk and promotive effects in the explanation of persistent serious delinquency in boys. *Journal of Consult Psychology, 70*, 111-123.
- Weaver, S. R., & Prelow, H. M. (2005). A mediated-moderation model of maternal parenting style,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nd problem behaviors in urban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3*, 343-356.
- Werner, N. E., & Silbereisen, R. K. (2002).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contact with deviant peer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454-480.
- 원 고 접 수 일 : 2010. 0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0. 27.  
게 재 결 정 일 : 2010. 11. 09.



## Analysis of Longitudinal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on Adolescents' Deviant Peer Contact and Delinquency

Byongsam Jung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on adolescents' deviant peer contact and delinquency. To best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a KYPS data set which was accumulated by 3,439 8th grade students was analyzed.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es were applied to test three research hypotheses. Results of the data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nonlinear growth models best fitted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of parental monitoring, deviant peer contact, and delinquency. Second, parental monitoring h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adolescents' deviant peer contact. Third, parental monitoring h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growth of adolescents' delinquency. Fourth, parental monitoring has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growth of adolescents' delinquency by moderating the deviant peer contac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gnitude of th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on adolescents' contact with deviant peers and delinquency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hose results suggest that the parental monitoring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adolescents' healthy growth and prevention of their delinquency and parental involvements are required for preventive program for adolescent delinquency.

*Key words: Deviant Peer Contact, Parental Monitoring, Delinquency, Latent Growth Model.*